

▣ 정부시책 ▣

산자부, 기계류부품 신뢰성평가 센터 설립

산업자원부는 각종 기계류부품의 기술 및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국산화된 제품이 신뢰성 결여로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덕에 있는 한국기계연구원내에 기계류부품 신뢰성평가센터를 설치기로 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이 센터는 700평 규모로 정부예산 80억원, 민자 32억원 등 총 112억원을 5년간 투입해 설립되며 우선 관련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기계류 핵심부품 31종을 중심으로 신뢰성 평가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신뢰성평가센터는 국내기업의 제품개발 과정에서 각종 신뢰성 시험, 불량원인 분석 및 개선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 국산기계류부품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한단계 올리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할 전망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에 신뢰성평가센터를 설치하게 된 것은 그간 국산화된 제품이 수요

자로 부터 제품의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는데다 중소기업체들의 경우 ISO(국제표준화기구) 등 국제규격에서 정한 각종 시험·평가를 수행하는데 막대한 자금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등 애로를 덜어주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신뢰성평가센터의 설립으로 무역역조 개선 효과 30억달러, 국산 기계류부품의 수출효과 10억달러, 국내에서 ISO규격 인증시험 가능 효과 5억달러, 신제품 개발기간 단축 5억달러 등 총 60억달러의 효과가 발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선진국들의 경우 독일 TUV, 프랑스 CETIM, 일본 MEL 등 시험 및 품질관련 평가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중기청, 공공기관 3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제품 조기구매 추진

- 중소기업청은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방부, 조달청, 한전 등 69개 공공기관이 '99년중에 29.7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토록 할 계획이다.

- '99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은 전년도 구매실적 28.5조원보다 4.1%(1.2조원) 증가한 29.7조원 규모이며, 동 구매계획을 조기에 집행토록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1/4분기에 35.5%, 2/4분기에 31.3%를 구매하여 상반기중 66.8%를 집행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이 주기적으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국무회의 또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한편, 부진기관에 대하여 구매를 독려하는 등 조기구매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중소기업의 수주확대를 위한 세부계획
- 중소기업의 입찰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발주정보의 적극 제공
 -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의 수주가 증대될 수 있도록 물품별 세부발주계획 및 구매관련 정보를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하고, 구매부서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관련 전담상담자를 지정하여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으로 부터의 발주계획 등에 관한 상담에 응하도록 함.
 - 각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 발주 및 해외조달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 인터넷 『국내외조달정보망』(www.smba.go.kr/bid)에 발주정보를 입찰공고와 동시에 수록될 수 있도록 함.
 - 단체수의계약 및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단체수의계약물품 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구매하고, 부득이 일반경쟁입찰에 의거 구매할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참가폭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수주확대를 도모하여야 함.
 - 연간 단가계약 활용확대
 - 공공기관은 물품의 성질상 연중 구매빈도가 높고 소량으로 수시 구매하여야 하는 물품은 단가계약물품으로 지정하여 협동조합과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계획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안정적인 가동을 도모하여야 함.
 - 적정가격에 의한 구매
 -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으로 부터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급현황, 원·부자재가격, 인건비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가격으로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함.
 - 특정상표 등의 지정제한 금지
 - 공공기관은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상표 또는 특수규격을 지정하거나, 물품을 구성하는

원·부자재에 대하여 특수한 조건을 요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 품질향상을 위한 조치 강구

- 공공기관은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품질, 성능, 효율,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낙찰제를 적극 활용하고, 제품의 규격 및 품질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 또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계약 또는 납품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신기술개발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신기술개발제품(NT마크, EM마크, KT마크 획득 제품 및 특허제품 등)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 물품구매 예시제의 실시

- 공공기관은 장·단기 구매계획을 수립하

여 사전에 중소기업에게 예시함으로써 물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이 계획생산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공사자재의 구매

- 공공기관은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공사소요 자재중 단체수의계약 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원칙적으로 분리구매한 후 이를 공사계약자에게 공급하거나 부득이 시공자의 지입자재로 할 경우에도 시공자가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 사용토록 유도하여야 함.

○ 여성기업 및 소기업의 수주기회 증대

-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공사·용역 포함)을 발주함에 있어서 가능한 여성기업과 소기업의 수주기회가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조기구매 및 구매확대

-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실업난 해소를 위하여 금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앞당겨 집행함과 아울러 대기업 제품이나 외국제품을 사용하기로 계획한 물량도 가급적 중소기업 제품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중기청, 기술혁신개발자금 지원 확정

중소기업청은 '99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자금이란 기술개발 능

발자금 지원업체로 744업체를 선정, 400억

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정부가 출연하는 기술자금이 다. 담보가 필요 없으며 기술개발에 성공할 경우 1년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매년 5%)으로 지원금액의 30%를 상환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들은 3월에 협약을 체결한 후 정부출연금의 50%에 해당하는 착수금을 먼저 지급받게 된다. 또 하반기 중간 점검결과 기술개발 진행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을 경우 나머지 금액을 성과금으로 받는다. 업체당 평균 5,300만원이 지원되며 업체별 지원액은 최고 8,600만원에서 최저 3,100만원까지다.

올해 선정된 업체들의 기술분야별 현황은 기계분야가 199개(26.7%)로 가장 많았고 전기전자분야가 160개(21.5%), 정보통신 148개(20.0%) 업체 순이다. 우대조치(가점부여) 분야중 벤처기업이 242개사, 기술경쟁

력 우수기업이 62개사, 수출전략 업종으로 13개 자동차 부품업체가 선정되었다. 중소기업의 경우(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 전체 선정업체(744개)의 80%인 593개 업체가 선정됐다.

이번 지원업체 선정은 중기청이 지방청에서 심사평가한 추천업체를 대상으로 타 기관의 지원등 중복여부를 검토한 후 지난 19일 '중소기업 기술지원협의회'에 상정, 심의한 결과 이루어진 것이다. 올 지원대상 선정은 지원업체의 심사, 평가 및 협약체결까지 기업편의 위주로 개선되어 지난해에 비해 2개월 앞서 결정되었다.

한편 올 지원사업에는 2,593개 업체가 2,327억원을 신청, 지원금액 4백억원의 6배에 이르렀다. 이는 '98년 신청업체 2,145개사보다 21% 증가한 것이다.